

일월윤무 지정연기 대본

궁산(구산해)

<지정연기 대본>

<https://youtu.be/156DfDkg4LY?t=566>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 멸망

집에 도착해 동경에게 전화를 거는 멸망. 침대에 앉아 설레는 얼굴로 전화를 건다.
같은 시각, 일하고 있던 동경. 멸망의 전화를 보고 살짝 미소 지으며 전화를 받는다.

멸망 (기다렸다는 듯) 나 다 씻었어.
동경 잘 준비도 했어?
멸망 (배게를 때만지고) 어어, 했어.
(침대에 누우며) 이제 누웠어.
동경 (피식 웃고) 잘했네.
(사이) 나 근데 지금 네 도움이 필요해.
멸망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지금? 갈까?
동경 아니, 전화로도 도와줄 수 있는 문제야.
멸망 (아쉬운 듯 다시 침대에 누우며) 뭔데?
동경 그때 있잖아, 병원에서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그때 무슨 생각으로 날 껴안은 거야?
멸망 (미소지으며) 아, 그때.
(사이) 뭔가 참을 수가 없어서. 이 참을 수 없는 감정이 뭔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동경 역시, 그때도 나 사랑했네.
멸망 (웃으며) 그랬지.

만족스럽게 미소짓는 멸망.

해당금(윤명월)

<지정연기 대본>

<https://youtu.be/b2M6Tsf9Pgg?t=282>

https://youtu.be/VEaf_SrhWxQ?t=206

노란복수초 설연화

(1)

일당 7만원 단기 알바하는 연화. 열심히 일하는 와중에도 타박을 듣는다.

배우1 (머리를 만져주는 연화의 손을 쳐내며 짜증낸다) 아파!
연화 (어색하게 웃으며) 죄송합니다..
(사이) 네!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연화. 그러다 유라를 만나 부딪힌다.

연화 아.. 죄송..
(유라의 얼굴을 보고) 유라... 맞지?
(반갑게) 유라야, 나야 연화. 설연화!
유라 (불편하다는 듯) 글썩요. 누구신지.
연화 (아랑곳 하지않고) 아버지 엄마 안녕하시..

연화의 말을 듣지도 않고 싸늘하게 지나쳐 가는 유라. 머쓱하게 유라를 바라보는 연화.

(2)

출소 후 동생을 맡긴 집에 찾아온 연화. 할머니가 연화를 보고 기겁을 한다.

연화 손녀딸이 아무리 귀하다고 죄까지 예뻐하시면 안되죠.
할머니 뭐..?
연화 절 산업스파이로 조작한 사람이 유라라는 거. 알고 계셨잖아요.
그 증거 CD, 할머니 방에서 나왔잖아요?
(사이) 할머니 그 모든 사실을 다 알고 계셨잖아요.
덮어주고 감싸주는 게, 그게 사랑인가요?
할머니 너 지금, 무슨 근거로 그런 소리를 하는거냐?
재 말 듣고 그래?

할머니의 말에도 굴하지 않는 연화. 할머니를 노려본다.

배선비(이배선)

<지정연기 대본>

<https://youtu.be/JOI3Gm8QAO4?t=69>

식샤를 합시다2 구대영

보험설계사 대영. 이사 오자마자 이집 저집 인사 다니며 보험을 팔기 위해 밑밥들을 깔고 다닌다. 덕분에 이웃들과 말을 금방 트게된 대영. 하지만 옆집 여자와 말 트기 쉽지 않다.

이삿짐이 어질러진 짐들을 발로 툭툭 차며 집으로 들어온 대영.

대영 (쓰레기를 툭툭 차며) 이야.. 이것도 이사라고 이게 쓰레기가 나오네.
(소파에 앉으며) 자.. 이점이씨는 완전히 넘어왔고,
이 옆집에 작가 마음만 잡으면 되는데.
(고민한다) 씩...

그때 울리는 초인종 소리.

대영 누구세요?

문을 열자 보이는 옆집 여자 수지. 반갑게 인사하는 대영.

대영 (반갑게) 아, 안그래도 정식으로 인사 가려던 참인데.
수지 (정색) 분리수거요.
대영 (당황) 예?

당황하는 대영과 그런 대영을 노려보는 수지.

D

<지정연기 대본>

https://youtu.be/li_6OrVJn9I?t=444

호텔델루나 장만월

(1)

커피를 마시는 만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본다.

엄마 우리 딸애에 대해서 하실 얘기가 뭐죠?

만월 (살짝 웃고) 이 집 유나가, 살인을 했습니다.

유나 반 친구가 여기 육교에서 자살을 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어리둥절한 부모의 표정.

만월 (속삭이며) 사실은 그게 아니래요.

이 집 딸이 죽었어요.

(피식 웃고) (사이) 이 목걸이가, 그 증거랍니다.

대가를 치루는 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 요 목걸이로 따님의 과오를 밝혀서 벌을 주고,

그 죽은 친구의 영혼에게 사죄를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사이) 제 입을 막고

요 목걸이를 없애는 거죠.

마주보고 고민하는 부모. 여유롭고 고고한 만월.

(2)

집을 나오는 여고생과 만월.

여고생 이젠 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만월 그럼, 저 목걸이만 없어진다면 네가 걔 죽인 건 아무도 모를거야.

여고생 아무도 모르겠죠?

만월 (여고생의 머리를 만지며) 저기 깃든 원념이 아주 강하다 그랬지?

저 목걸이를 태우면, 네가 용서받을 기회도 영원히 없어지는 거야.

여고생 (사이) 상관 없어요.

만월 (웃으며) 아닌데?

(사이) 그럼 넌 영원히 못 돌아가.

여고생 네?

만월 (선글라스를 벗으며) 네 영혼이, 진짜로, 죽는다고. 아무도 모르게.

굳은 얼굴로 집에 들어가는 여고생과 꿀 좋다는 듯 웃는 만월.